

# 광주시 '통합돌봄 시즌2' 복지 사각·고독사 없앤다

### 복지·의료 업무보고...골든타임 내 응급·소아·분만·감염병 진료체계 구축 중증치매·정신질환·예방사업 공공성 강화...마을 단위 공동체 돌봄 실현

광주시가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 사업을 통해 응급·소아·정신·분만 등 필수의료와 고독사 예방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광주시는 15일 시청사에서 강기정 시장과 실·국·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복지 분야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이어 올해 선보이는 '시즌2'는 사람과 이웃 간 단절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마을중심 돌봄센터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또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응급·소아·정신·분만·감염병 진료를 제공받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중증치매, 정신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보건·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관계 만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시민 개개인의 돌봄에 초점을 맞춘 '통합돌봄 시즌1' 사업을 확장해 각 자치구별 마을 단위로 함께하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을 실현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달방촌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달방남달방 커뮤니티센터'를, 서구는 빈곤 1인 가구를 위한 '쌍촌케어 돌봄교실'을, 남구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느린 학습자를 위한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을, 북구는 단독주택 1인 가구를 위한 '마을건강마을돌봄'을, 광산구는 1인 가구를 위한 '마을밥카페',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등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 시설을 운영한다.

또 가정으로 방문하는 광주+돌봄 서비스 지원 범위도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로,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로 확대한다. 일시적이 단가는 시간당 1만 6600원에서 2만원, 식사 지원은 끼니당 8000원에서 9000원, 안전 생활환경은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간 협업을 통해 고독

사 위기징후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AI 보이스봇 통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움직임 센서를 활용하고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과 협업해 1인 가구의 이상징후를 확인한다. 또 고독사 위험군을 의무 방문 대상자에 포함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거점형 마을공동체 돌봄을 추진해 사회적 고립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응급·소아 등 필수 의료 적정 진료체계 구축과 보건·공공의료기관 공공기능도 확대한다.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응급의료 지원단을 설치해 응급의료센터와 필수 의료인력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올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하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응급 입원을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을 위해 상시 활용 가능한 긴급 치료 병상도 13개 추가 확충한다.

시립제1요양병원은 중증 치매 환자 중점 치료를 위해 치매전담병동 83병상을 지속해 운영하고, 시립정신병원은 기존 202병상에서 격리·폐쇄병동 38병상을 추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됐다"며 "올해는 기술(AI·ICT), 사람, 마을 거점을 연결해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둔 시즌2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pace Hub' 발사체 제작센터(한국형 누리호 발사체 고도화사업 단조립장) 착공식이 15일 오전 순천시 울촌 제1산업단지 내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 노관규 순천시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이 착공 발파식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순천에 누리호 발사체 '국내 유일 민간 단 조립장' 착공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작센터 첫삽... 첫 민간기업 투자 실현

15일 순천 울촌산업단지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총괄 제작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스페이스 허브(Space Hub) 발사체 제작센터'를 착공했다.

착공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서동용 국회의원,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노관규 순천시장, 송상락 광양만권자유구역청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표, 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고도화사업단장 등 우주산업 관련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항우연이 주관하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업체로 선정돼 국내 300여 참여 기업과

협력해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제작을 총괄한다.

지난해 5월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3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는 1.5t 위성을 700km 위성궤도에 쏘아올릴 3단형 우주발사체다. 1, 2, 3단 단조립을 이번에 구축되는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에서 수행한다.

이곳에서는 각 단을 조립한 후 나로우주센터로 이송하는 등 총조립과 발사를 3차례 할 예정이다. 누리호 고도화사업 수행과 상업 우주시대 도래를 대비한 미래발사체 제작 기반시설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는 전남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첫 민간기업 투자유치 실현이다.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 우주산업 확대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우주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성장동력산업이다. 전남이 대한민국 우주강국 실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끈임없이 도전하는 '그레이트 챌린저' 한화그룹이 전남도와 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미래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5월 고흥에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내 국가산단 부지가 조성되는 대로 우주발사체 핵심 구성품의 제조시설을 건설하기로 전남도, 고흥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지방공무원 105명 신규 채용

### 응시연령 18세로 하향...전산직렬 자격증 요건 폐지

광주시가 지방공무원 105명을 신규 채용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반기에 일반행정 등 16개 직렬 8~9급 97명, 하반기에는 6개 직렬 7급과 연구사 등 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행정직군 41명, 기술직군 62명, 연구사 2명을 선발한다. 직급별 채용 인원은 7급 2명, 8급 5명, 9급 96명, 연구사 2명이다.

광주시는 장애인 6명, 저소득층 3명, 기술계 고졸자 2명을 일반 응시생과 구분해 선발하기로 했

다. 2025년 세계 양강대회 준비,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착공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해 채용 규모를 결정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올해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되고 전산직렬 공채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폐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시험 인사정보'란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모바일 광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도, 과수 4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29일까지 신청자 접수

전남도가 오는 29일까지 사과, 배, 단감, 딸은 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의 90%를 보조 지원한다.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

나 원예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우박·지진·화재는 물론 언피해(동상해)와 햇볕 데임(일소) 등 여러 자연재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 배, 딸은 감 4개 과수에 대해 6313농가가 4886ha를 가입, 보험금으로 모두 298억원의 지급받아 농작물 피해로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지난해 민원서비스 '전국 최우수'

### 역대 최고 성적

전남도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가' 등급(전국 최우수기관)을 받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접하는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분야 중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아토피 초등학교, 장성으로 유학오세요

## 아토피 유학 설명회

- 장소 : 장성문화예술회관
- 일시 : 2024년 02월 28일 (수요일) 15:00

### 우리 아이 아토피! 온 마을이 함께합니다

- 피부과 전문의 및 한의원의 정기 진단 진료
- 통합의약의 입장에서 전문약사가 진행하는 숲이 보낸 처방전
- 숲해설가 및 산놀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숲속 놀이
- 놀이 전문가가 진행하는 황토길 산책 및 맨발걷기
- 전문한의사를 한방주치의 제도 아토피 제로
- 교육심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 숲에서 이루어지는 1박2일 가족캠프

## 특별혜택 - 거주 펜션 지원 (선착순 30명)

축령산 자연속에서 신나게 놀아요  
아토피 관련 치유 프로그램  
다양한 방과후 특별교육(물놀이 숲놀이)

## 1급수 축령산 모암저수지

## 어린이 물놀이터, 숲놀이터

## 개장예정

전라남도 장성교육 지원청 (061) 390-6000